2009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08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 답

1	⑤	2	④	3	②	4	②	5	⑤
6	②	7	④	8	③	9	⑤	10	④
11	①	12	①	13	②	14	③	15	⑤
16	②	17	④	18	②	19	③	20	①
21	②	22	④	23	④	24	⑤	25	⑤
26	③	27	①	28	①	29	①	30	⑤
31	④	32	③	33	③	34	⑤	35	①
36	③	37	①	38	③	39	①	40	②
41	④	42	②	43	④	44	②	45	③
46	⑤	47	④	48	③	49	⑤	50	①

해 설

[1] 이제부터 남녀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 저기 봐! 비둘기들이 모이를 먹고 있네.
남 : 비둘기는 무슨 비둘기. 저건 닭둘기야. 살이 뒤룩뒤룩 쪄서 뒤뚱거리잖아. 쟤들 좀 봐. 사람이 다가가도 피하지도 않아.
여 :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너 비둘기한테 무슨 감정 있냐?
남 : 살찐 것은 그렇다 치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비둘기를 유해 조류로 분류하더라구.
여 : 그건 좀 심하다. 뭐가 해롭다는 거야?
남 : 비둘기 때문에 생긴 피해가 의외로 심각한가 봐. 비둘기 배설물은 강한 산화력이 있어서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부식시키기도 한대. 게다가 배설물 안의 세균이 폐질환과 뇌수막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깃털은 또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된다는 거야.
여 : 비둘기가 많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나 보구나.
남 : 요즘 공공기관에서는 비둘기를 퇴치하려고 골머리를 앓고 있나 봐. 다리 밑에 비둘기가 집을 짓지 못하게 끈끈이 성분을 뿌리기도 하고, 고궁 처마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접근을 막는다고 하더라구. 이런 방법들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긴 했는데, 그랬더니 비둘기들이 일반 주택가로 몰려들어 또 피해를 주고 있대.

1. [출제의도] 대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관련된 다른 상황과 견주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남녀의 대화 내용을 통해 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런 피해를 견디다 못해 유해 조류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기>는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비둘기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통념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번에는 정수기에 대한 강의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돗물 정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돗물 정수기에는 활성탄과 미세 필터가 들어 있는데요, 정수기에 들어온 수돗물은 이 활성탄과 미세 필터를 차례로 거치면서 정화됩니다.

정수기에 들어온 수돗물은 먼저 활성탄을 거치게 되는데요, 활성탄은 표면에 무수히 뚫려 있는 미세한 구멍으로 유기물을 빨아들여 걸러냅니다. 이렇게 활성탄을 통해 1차적으로 걸러진 물은 미세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활성탄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물질이나 세균을 걸러냅니다. 미세 필터에서는 수돗물에 있는 녹과 일반 세균, 그리고 기타 찌꺼기들이 걸러집니다. 최근에는 특정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강화된 정수기도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온 교환체를 함유한 특수 활성탄을 사용하면 보통의 활성탄이 걸러내는 물질뿐 아니라 수돗물에 남아 있는 납까지도 걸러냅니다.

그런데 정수기가 물에 들어 있는 모든 물질을 걸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은 정화된 물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온 교환체를 함유한 특수 활성탄을 넣은 정수기의 정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그림에서, 물이 Ⓐ 부분을 통과할 때 그 속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2. [출제의도]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수돗물은 먼저 활성탄을 통과하면서 물속에 들어 있던 유기물 등이 걸러지고, 그다음 미세 필터를 통과하며 녹과 일반 세균, 그리고 기타 찌꺼기가 걸러진다. 그런데 활성탄 대신 특수한 기능이 추가된 특수 활성탄에 물을 통과시키면 일반 활성탄에 의해 걸러지는 것들 외에 다른 물질들이 추가로 걸러진다. 강사가 설명한 특수 활성탄은 이온 교환체를 함유한 것으로 흡착에 의해 납을 걸러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온 교환체를 함유한 특수 활성탄을 통과한 Ⓐ 부분의 물에는 납이 들어 있지 않다.

[3] 이번에는 훈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먼저 등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얼마 전에 사망 소식이 들려 와서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지요.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 첫 등정을 기념하는 사진에 얽힌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 사진에는 '셰르파'였던 '텐징 노르게이'만이 있다고 합니다.

셰르파는 우리가 흔히 '셀파'라고 하는 티베트 계 네팔인을 뜻하는 부족 이름인데, 지금은 히말라야 등정 도우미를 뜻하는 일반 명사로 쓰입니다.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사람은 1200여 명인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 셰르파였다고 합니다. 셰르파는 아주 적은 일당을 받고, 무거운 등짐을 진 채 히말라야 8000m의 고지대를 오르내립니다. 때론 목숨을 걸고 정상 정복에도 동행하는 등 중요한 일을 하지만 정작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의 영광을 셰르파 '텐징 노르게이'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힐러리 경 덕분에 '텐징 노르게이'는 그 이름이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셰르파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보답한 것이지요. 이후 힐러리 경은 셰르파 돕기에 눈을 돌려 히말라야 산골에 학교, 병원, 다리 등을 건설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셰르파들은 지금도 힐러리 경을 아버지처럼 존경한다고 합니다.

3. [출제의도] 훈화 내용을 바탕으로 교훈을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첫 등정 사진에는 그가 아니라 셰르파였던 '텐징 노르게이'만이 찍혀 있다고 한다. 그 까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힐러리 경이 미천한 신분이었던 셰르파의 존재를 인정하고 첫 정상 정복의 영광을 나누고자 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힐러리 경은 셰르파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평할 수 있다.

[4-5] 이번에는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문화계 소식을 알아보는 '문화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 평론가이신 안재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대담자 :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 며칠 전 뮤지컬 공연 티켓을 예매하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대가 잘 안 보이는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 중 최하 등급 좌석이 '로열석'이더군요.
대담자 : 그렇습니다. 많은 공연장이 전체 좌석 가운데 90% 이상을 로열 석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최고 등급 좌석이었던 로열 석이 지금은 최하 등급이 된 것이지요. 로열 석 아래 등급이었던 S석이나 A석은 구경하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어떤 공연 기획사에서는 'VIP 석'보다 비싼 '프리미엄 석'까지 새로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 저도 최근에 만난 공연기획사 대표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석은 관람료를 일절 할인하지 않는 대신 명품 좌석이기 때문에 좀 비싸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던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담자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명품 바람이 거센데, 기획사에서는 이런 풍조를 이용해 전체 좌석의 가격을 올려 공연 수익을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뮤지컬까지도 로열 석이 가장 낮은 등급이 되었는데, 결코 좋게 보이지 않더군요.
진행자 : 일본에 가 보니까 아직도 뮤지컬 공연장 좌석을 전통적 방식인 S석, A석, B석으로만 구분하고 있던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대담자 : 우리 나라처럼 VIP 석이니 프리미엄 석이니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뮤지컬의 메카로 불리는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도 1층과 2층만을 구별하고, 좌석의 가격도 세 등급 정도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뮤지컬은 오페라와는 달리 대중적인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그 티켓을 VIP니 프리미엄이니 하는 이름으로 팔고 있는데, 이것은 뮤지컬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대중들이 뮤지컬을 친숙하게 즐길 수 있게 하려면 명품 좌석들을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공연 기획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4. [출제의도] 대담에 참가한 사람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대담은 뮤지컬 공연 기획사가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공연장의 좌석 등급을 높여 수익을 올리는 현상에 관한 것이다. 이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뮤지컬 티켓을 예매한 일, 기획사 대표와의 인터뷰 등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을 소개하면서 뮤지컬 공연계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다룬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담자의 말을 끌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진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담자의 말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출제의도] 대담을 통해 제시된 내용 정보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대담 내용은 뮤지컬 공연계의 명품 마케팅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부정적 공연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행자는 공연 기획사 대표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프리미엄 석의 배후에 명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공연 수익을 높이려는 기획사의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음을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6. [출제의도] 제시된 내용을 참고로 연상할 때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그물'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상 작용을 거쳐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 보자.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학습에 흥미를 붙여야 한다는 것은 <보기> 중의 어느 것과도 관련되지 않는 내용이다.

7.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첫 번째 조건은 우선 투병 중인 학우를 위해 성금 모금을 우회적으로 독려하는 내용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답지는 ①, ④, ⑤이고, 두 번째 조건은 비유적 표현인데, 이에 해당하는 답지는 ①, ②, ④이다. ①에서는 '사막과 같이', '우정의 오아시스' 등이 비유적 표현이며, ④에서는 '꺼져가는 불씨', '사월의 햇살처럼 향기로운 미소' 등이 비유적 표현이다. 세 번째 조건은 감각적 표현인데, 이에 해당하는 답지는 ②, ③, ④이다. ②에서는 '식어가고', ③에서는 '따뜻한 마음', ④에서는 '향기로운 미소'가 감각적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답지는 ④이다.

8. [출제의도] 글감을 조직해서 글의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나)[B]는 고교생의 졸업자가 점점 줄어들 것임을 예측하게 해주는 자료이다. 이것만 가지고 공대 진학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자료의 해석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에 따라 제시된 대안(정부의 공대 지원)도 부적절하다.

9. [출제의도] 글을 쓰기 위해 글의 목적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조사 내용 및 방법은 이미 앞에서 확정된 사항이므로 외국의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새로운 조사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은 글 쓰기 순서에 맞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의 성격을 알고 그에 맞게 퇴고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의 경우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꾸면 더욱 어색해진다. ㉣은 이유를 제시하는 문장인데 그것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장 뒤로 갈 까닭이 없다. ㉣의 위치는 예를 든 내용의 뒷받침이므로 현재의 위치 다음 문장과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

11. [출제의도] 높임 표현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습니다'라는 문장에서는 '-시'가 쓰였으므로 주체(주어)가 화자보다 높고, '-습니다'가 쓰였으므로 청자가 화자보다 높다. '동생이 운동을 했습니다'라는 문장에서는 '-시'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화자가 주체(주어)보다 높고, '-습니다'가 쓰였으므로 청자가 화자보다 높다. 따라서 ⓐ와 ⓒ의 분석이 옳다.

12. [출제의도] 고유어를 문맥에 맞는 한자어로 바꿀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2>의 첫째 문장에서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했다는 의미이므로 '말'을 '진술(陳述)'과 바꿀 수 있다. <보기2>의 둘째 문장에서는 지은 죄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는 의미이므로 '말'을 '자백(自白)'으로 바꿀 수 있다. <보기2>의 셋째 문장에서는 회의 시간에 두발 자율화를 주장하기 위한 의견을 말했다는 의미이므로 '말'을 '개진(開陳)'으로 바꿀 수 있다. <보기2>의 넷째 문장에서는 보도 내용에 대항하여 자신을 변호하여 말했다는 의미이므로 '말'을 '항변'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대화(對話)'는 <보기>의 '말' 중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13-17] 시가복합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김수영, 「눈」, 김부식, 「감로사차혜원운」)

13.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자신이 값싼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고, 직지사 해우소의 똥덩이처럼 느껴진다고 하여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의 화자는 산 위에 올라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이 반평생 동안 헛이름만 찾으며 살고 있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14. [출제의도] 제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가)의 제목은 '대장간의 유혹'이다. 이때 '대장간'은 어떤 공간이고, '유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해야 제목을 통해 시를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대장간'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많은 쇠를 단련하여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만드는 생산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자신도 그런 공간에서 연단되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유혹'은 화자의 소망을 보여 주는 말인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 진정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갈망을 '유혹'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똥덩이'는 화자가 자신의 인생을 비유한 대상이다. 마치 '직지사의 해우소'에서 아득하게 떨어지는 존재, 배출해야만 깨끗하다고 느끼는 존재를 의미한다. (나)에서 '가래' 역시 화자가 '뱉음'으로써 정화된 느낌을 지닐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이 두 소재의 공통점은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 존재이며, 화자의 부정적인 속성, 또는 부정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16. [출제의도]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나)의 '눈은 살아 있다'는 매우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때 '눈'은 자연물로서의 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자료에 의해 '순수, 결백'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하여 그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곧 '현실 비판의 능력을 지닌 순수한 생명력,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순수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17. [출제의도] 시상 전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다)는 세속의 사람들이 오르지 않는 가을 산에 올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자연의 상황, 즉 가을의 산, 강, 백조, 돛단배 등의 외부 상황을 묘사한 다음, 자신이 헛이름을 추구하며 살아왔기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내면을 언급하고 있다.

[18-21] 사회 (김영평, 「공유자원의 비밀」)

18. [출제의도] 본문에서 언급된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하고, 공유자원은 배제성이 없지만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말한다. 따라서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와 구별된다.

19. [출제의도]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깨끗한 공기라는 공유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권리를 사유 재산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실패를 사유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다의어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과 마찬가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생기지 못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오답풀이] ② 추위 따위가 어떤 대상에 미치지 못하게 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③ 외부의 공격이나 침입 따위를 버티어 지키다는 의미로 쓰였다. ④ 돈을 갚거나 결제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⑤ 길, 통로 따위가 통하지 못하게 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21. [출제의도]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공유자원을 정부가 통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②이다. 치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누리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편익이 줄지 않는다는 점에서 치안은 공공재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유자원을 예방하는 방법과 관련이 없다.

[22-25] 고전소설 (허균, 『홍길동전』)

22.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본문은 길동의 신출귀몰한 능력이 부각된 부분이다. 이 글은 길동의 출현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그의 신이한 능력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나 본문의 뒷부분에서 길동이 임금으로부터 병조 판서를 제수 받는 장면은 길동의 뛰어난 인품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병조 판서 제수는 길동의 소원을 전해 들은 임금이 길동을 잡기 위한 유인책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④는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23. [출제의도] 지정된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드러나는 인물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A와 B는 길동의 이복 형제인 인형과 길동이의 대화이다. A에는 자신을 찾아온 길동을 보고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인형의 복합적인 심정이 잘 드러나 있고, B에는 길동의 내면적 갈등과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길동이 과거에 벌어진 일을 후회하며 한스러워하고 있는 태도를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

24. [출제의도] 제시된 상황과 관련하여 어구의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문제이다.

길동이가 신출귀몰한 능력을 지녔다는 전제를 <보기>로 준 후에, 본문의 내용들을 이와 관련지어 파악하는 문제이다. 길동이 병조 판서를 제수 받게 되자 임금 앞에 사은하러 나가 엎드려 절한 것은 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행동이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행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25.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글쓰기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글쓰기에 적용시킬 때 어떤 전략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⑤는 '사면이 되었다', '아버지를 찾아갔다', '조선을 떠났다'는 길동의 행적을 드러내고 있고, '서자의 한'을 언급한 부분에서 길동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으며, 조선을 떠나겠다고 임금께 하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의 뒷부분 내용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⑤이다.

[26-28] 기술 (박세광, 「터치스크린과 에어백에 숨은 기술」)

26. [출제의도] 글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며 독해를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문단에서 터치스크린이 어떤 장치인지 소개하면서 화제를 제시한 후,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서 터치스크린의 작동 원리를 접촉식 방식과 저항막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넷째 문단에서는 터치스크린의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터치스크린이 당면한 기술적 어려움들이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될 것이며 장차 '전자종이'에 적용되어 미래 생활을 이끄는 기술이 될 것이란 사실을 전망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터치스크린의 핵심 기술은 첫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터치스크린의 핵심 기술은 스크린의 특정 부위에 손가락이나 펜을 댔을 때, 그 사실을 분석해 감지하는 데에 있다. 누르는 강도의 차이를 인식하는 기술은 핵심 기술에 부가적으로 첨가될 수 있는 것이다.

28. [출제의도] 설명된 기술의 원리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접촉식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류가 통하지 않는 물체로 접촉했을 때는 반응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저항막 방식의 장점은 유리판 위에 저항막을 입히고 그 위에 덮어씌운 필름 안쪽에도 저항막을 입힘으로써 구현된 것이다. 두 저항막 사이는 절연봉에 의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필름 위를 누르면 간격이 사라지면서 저항막이 맞닿아 전압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신호를 분석해 접촉 위치를 감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막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접촉식 방식과 달리 전류가 통하지 않는 물체로 접촉을 해도 작동한다.

[29-31] 예술 (조이한 · 진중권, 『천천히 그림 읽기』)

29. [출제의도] 핵심 화제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지문은 고흐의 의자 그림들을 '얼굴 없는 자화상'으로 보면서 그 속에 숨은 고흐 특유의 정신적 세계를 분석한 글이다. 글쓴이는 고흐 자신의 의자를 그린 그림과 고갱의 의자를 그린 그림에서 고흐 자신의 정체성과 여성적 성향을 분석해 낸다. 글쓴이는 고흐의 의자에 놓인 파이프를 통해 아버지의 강한 정신적 영향을 받았던 고흐의 내면을 읽고 있으며, 고갱의 의자를 통해 강한 남성성에 애착을 느끼는 고흐의 여성성을 발견한다. 이런 맥락에서 얼굴 없는 자화상은 화가의 깊은 내면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30. [출제의도] 글쓴이가 글을 쓰기 위해 어떤 글쓰기 전략을 사용하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얼굴 없는 자화상은 이 글의 중심 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 글쓴이는 특히 고흐가 그린 두 그림에 초점을 맞춰 고흐의 내면 세계를 분석한다. 글쓴이는 '고흐의 의자'에서 그 아버지의 강한 정신적 영향을 받았던 고흐의 모습을 발견했으며, 고갱의 의자에서 남성에 대해 애착을 느끼는 고흐의 양성적 갈등을 읽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자 나게라의 이론을 소개하며 고흐의 심리를 분석한다. 이를 고려할 때, 글쓴이가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덧붙여 논지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31.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1>에는 고흐의 개인사적 체험이 등장한다. 고흐는 목사였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강한 정신적 영향을 받았으며 평생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고흐가 물려받은 아버지의 파이프는 아버지를 상징하던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그림(가)와 연결하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태도가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흐의 동생 테오의 일화를 통해서는 고흐가 가진 애착 심리를 읽을 수 있다. 지문 내용을 보면 고흐는 동료 화가였던 고갱에게 이런 애착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32-35] 과학 (최승일, 『상식으로 알아보는 몸의 과학』)

32. [출제의도] 문단의 핵심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다)에서는 포화반응과 해리반응이 어떤 여건에서 잘 나타나는지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문단의 핵심 내용은 포화반응이 해리반응과 반대로 산소가 많고 pH가 높고 온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난다는 것이다.

33.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시각 자료에 적용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포화반응을 보이지만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해리반응을 보인다. ⓒ의 과정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분리되는 해리반응을 나타낸다. 즉 ⓒ의 과정이 일어나는 조직세포 부근에는 산소가 적은 곳이다. 이러한 곳에서 적혈구에서 산소가 분리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져 pH가 낮아지게 된다.

34.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ㄱ 상황처럼 숨을 참으면 체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ㄷ과 같이 격한 운동을 해도 체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ㄴ과 같은 상황에서는 찬바람을 쐼으로써 포화반응 비율이 높아진다. 즉, ㄱ, ㄷ의 상황에서는 포화반응의 비율이 감소하고 ㄴ의 상황에서는 증가하는 것이다.

35.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들이마시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흡입(吸入)'이다. '흡입'은 '기체나 액체 따위를 빨아들임'을 의미한다.

[36-39] 언어 (장영준, 『언어의 비밀』)

36.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사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4문단을 보면 브로카 실어증 환자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쓰지만 의미는 맞게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어증 환자 대부분이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른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7.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실어증 환자는 '아, 아들', '그, 그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을 더듬고 있으며, 조사나 어미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등,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문의 넷째 문단의 정보에 따르면 이 환자는 브로카 실어증 환자에 해당하며, 좌뇌의 앞부분이 손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8. [출제의도] 제시된 상황에 나타난 언어 현상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실어증 환자는 물고기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명칭을 기억해 내지 못하여 물고기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지만 이 환자는 마지막에 가서야 '물고기'라는 단어를 겨우 떠올릴 정도로 명사를 기억해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특이하게 명사를 잘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것이 베르니케 실어증의 특징 중 하나이다.

39. [출제의도] 파생어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고 합성어와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꽃답다'는 '말하다'처럼 명사 어근인 '꽃'에 접미사인 '-답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40-43] 현대소설 (홍성원, 「흔들리는 땅」)

40. [출제의도] 소설 속 공간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공간은 크게 시골과 도시이다. 주인공 '재득'은 시골에서 야간 도주(야반 도주)해서 떠나와 서울에 정착해서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런데 '방'을 자주 옮겨 다닌다는 표현으로 보아 도시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골집'과 '평택집' 모두 '재득'이 인간적인 측면의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낀다고 판단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

41. [출제의도] 소설 속의 상황을 시적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시(감태준의 『철새』)에는 힘든 삶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향하는 가족의 사연이 담겨 있다. '먹물'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고 있지만 미래 상황이 캄캄함을 암시하는 시어이다. 이는 야간 도주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재득'의 상황과 유사하지, 일터를 잡은 다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하는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42. [출제의도] 소설의 표현과 의미 맥락을 연결지어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대대적으로'와 '한바탕 씩씩하게'라는 말을 연결 지어보면 '재득'이 농사일을 망친 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양계업을 시작할 때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출제의도] 발화에 담겨 있는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와 ⓑ의 표면적인 발화는 유사하지만 '김씨'가 이유를 묻는 근거는 다르다. ⓐ는 '재득'이 '무너지듯이 털썩 앉는' 모습에서 안 좋은 기색을 염려하여 묻는 물음이고, ⓑ는 편지를 읽고 나서 갑자기 음식을 반이나 남기고 일어서는 모습이 의아스러워 묻는 물음이다. 그런데 "안 좋은 편진가?"라는 '김씨'의 말로 보아, ⓑ에는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기에 밥을 먹다가 그만 두는지 의아스러운 심리가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44-47] 희곡(채만식, 『제향날』)

44. [출제의도] 희곡의 작중 상황을 이해하고 등장인물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상인이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프로메테우스 신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신도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최씨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하다.

45. [출제의도] <보기>를 활용하여 작중 상황에 대한 심화 감상을 유도하는 문제이다.

상인이 할머니에게 들려주는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약간 토속적으로 각색하여 소개하고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전해 준 후 제우스 신의 노여

움을 사서 평생의 고통에 시달린다고 하였다. 이런 <보기>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것은 프로메테우스에 해당하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일제 강점에 맞선 삶을 살려 하는 '상인'이 프로메테우스에 대응하고, 상인이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회주의'는 불을 훔치는 프로메테우스의 행위와 대응한다.

46. [출제의도] 작품의 해당 부분을 정확히 독해한 후 작중 상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최씨는 자신의 신세가 순탄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된 원인이 조상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47. [출제의도] 희곡의 특성을 살려 무대 공연을 할 때 적절한 방안을 묻는 문제이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형벌을 받는 장면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극심한 형벌 끝에 의지를 잃지 않고 의를 이루었고 뉘우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으니 혹독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태도라 하겠다. 이런 상황에 맞는 '효과'는 ④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둥, 번개, 폭우, 강풍 그리고 눈이 극심한 시련과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에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적절하겠다.

[48-50] 인문 (박지영,『유쾌한 심리학』)

48. [출제의도]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시되어 있지만 동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9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본문은 '동조(同調)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로서 동조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좀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그리고 집단의 압력에 의해 소외되지 않기 위해 타인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5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임금'이 거리로 나선 것은 옷을 자랑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동조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를 사기꾼에게 동조한 것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보더라도 이것은 자신이 정직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 두려워 옷이 아름답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부정적 측면에서의 동조라고 할 수 있다.